

광주글로벌모터스 단체교섭 끝내 결렬...조정절차 돌입

노사 첨예한 대립 다음주 마지막 조정도 합의 가능성 낮아 "순항중인 캐스퍼 수출에 찬물" 지역 경제에 잇단 우려 성명

노·사·민·정의 합의에 따라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가 위기를 맞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통해 35만대 생산까지 노사상생협회의가 노사 협의를 대신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이 파기된다는 단체협상까지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에는 이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캐스퍼 해의 수출을 시작하며 순항하던 GGM은 당장 캐스퍼 생산을 전량 위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계약 해지,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등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등이 함께 투자한 '광주 기업'이 노조 활동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GGM 노조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이 200여 가지에 달해 실현 불가능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협상 결렬을 통해 파업을 선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GGM과 노동계에 따르면 GGM 사측과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체협상 조정에 들

어간 상태다. 첫번째 조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주 마지막 조정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준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조는 200개가 넘는 요구사항을 사측에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GGM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70여개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 불가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의 노무 담당자는 "대기업 노조가 수십 년 간 협상으로 따낸 조건도 10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GM 노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첫 협상부터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GGM 노조의 쟁의 활동에 대해 지역 경제, 광주시 등은 우려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GGM이 지역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광주시가 수년간 머리를 맞댄 끝에 대타협으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임금과 근로 여건을 노사상생협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협정서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했고, 쟁의 활동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5년여만에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GGM은 지난 10월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 위탁생산을 시작하지 3년여만에 2600대를 유럽에 수출했으며, 연말까지 세계 54개국에 1만11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현재 누적생산량은 15만대로, 약속한 35만대까지는 20만대가 남은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가 GGM 노조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총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GGM 단체교섭 결렬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모든 협약서 및 계약서, 주주 간 협약 등에도 분명히 협력적 노사 상생 모델의 구축, 적정 임금 수준 유지 등의 원칙 준수가 명기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조 설립은 GGM 설립 과정의 모든 협정과 협약, 즉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 GGM 임직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고3 수험생 700명 대상 '1사1교 금융교육'

예비 사회초년생 금융지식 제공

광주은행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광주은행과 결연을 맺은 광주·전남지역 고교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요일별로 금융 카테고리별로 정해 진행했으며,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은행의 역할과 올바른 저축 방법, 카드 사용법, 과도한 대출 자제, 불법 사금융의 문제점 등을 교육했다.

이어 '금융 사기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사회초년생들의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방법 및 현실적인 금융 정보 등도 제공했다.

고령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금융 사기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



요하다"며 "1사1교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 '1사1교 금융교육을 처음 시작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 한해에만 5000여명의 광주·전남 중고교생에게 금융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역대 연봉 139만명...33%는 면세

평균 4300만원...100만원 늘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어난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부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지난달 광주 수출 전년 동기비 30% 줄어...전국 최대 감소

자동차·반도체·냉장고 등 급감...전남 수출도 17.3% 줄어

지난달 광주의 수출 감소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침체로 인한 자동차, 반도체, 냉장고의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한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1.4%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달리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11월 광주의 수출은 타이어와 공조조정기 및 냉난방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냉장고 수출이 급감했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1% 감소한 3.8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비중도 44.1%에서 38.9%로 줄었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월초 부품업체 파업과 파업종료 후 지속된 입단협 영향으로 부품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생산, 수출 감소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도체는 31.6% 감소한 2.7억달러 수출을 올렸고, 냉장고도 53.1% 줄어든 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의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17.3% 감소한 33.6억 달러를 기록했다.

"K-푸드"의 인기로 농림수산물 수출은 16% 늘었지만 광·공산품 수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은 24.1% 감소한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 합성수지(-27.2%)와 기초유분(-24.8%), 기타석유화학제품(-32.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불산단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끝마쳤다. 또 대불국가산단 내 물류 적지 공간 부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면적 5만1514㎡를 확보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 중 하나다. 중대형 물류의 효율적인 운송 및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류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불산단 특화 물류 디지털화, 첨단화 촉진을 목표로 했다.

1차년도인 2023년에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 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안전 관리 시스템 설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2차년도인 올해는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비전 AI기반 지능형 CCTV,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적지·운송·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대불국가산단지 내 현안문제인 물류 적지 공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물류 시설 면적 5만1514㎡를 확보한데 이어 비디오펀, 관제 인프라를 포함한 전산실을 구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환율 급등 1450원 넘어서...기업들 비명

수입대금 급증에 원가 부담 커져 수입선 다변화·시점 조정 등 나서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원자재나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 기업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일부 기업은 긴급히 내년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수입 시점 조정 등 환율 변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환율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대로 결제하는 일부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비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리스크로 작용한다.

반도체 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판매 가격이 높아져도 장기적으로는 수입하는 웨이퍼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에 타격을 준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 추세가 장기화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배터리 업계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온 등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 신·증설을 활발하게 하

고 있어 강달러로 투자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국내 자동차 업체 매출은 4천억원가량 증가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부품, 원자재 비용이나 현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상쇄된다.

정유업계는 연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해외에서 달러화로 사들여서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석유 제품 수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원유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으로 경영 실적에는 악영향이 발생한다.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철강 업체 또한 환율 급등이 골칫거리다.

수입 비용이 증가해 원가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철강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원자재값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 업계는 큰 고민에 빠졌다.

식량자급률이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르면 식품 기업들은 제품 원가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라면, 빵, 칼국수, 과자, 초콜릿, 주스 등 광범위한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19일 광주신세계 '바버' 매장에서 모델이 다양한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패션 그룹 LF 브랜드들이 오는 20~25일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LF 패션 그룹전'을 열고, 겨울철 아우터 제품들을 최대 70%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기술원, 디스플레이용 색 변환 소재 개발

센서·조명·의료 분야 등 확대 적용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색 변환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QD-OLED 및 마이크로 LED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자체 발광 수나노미터의 반도체 결정(AIGS 양자점)으로, 양자효율과 색 순도가 우수해 기존 소재와 차별성을 가졌다는 것이 한국광기술원의 설명이다.

기존 소재는 색순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열 안정성이 낮아 높은 휘도 구현이 불가하며, 수분 안정성이 낮아 장기 신뢰성이 취약하다. 또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푸른색(Blue) 영역에서의 광 흡수율이 낮아 청색광의 누설현상 발생에 따른 디스플레이의 높은 광변환효율 달성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광기술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연구센터 송영현 박사 연구팀과 컨소시엄 기업 ㈜이노큐티, ㈜파인랩, 순천향대학교 등이 공동 개발한 이 소재는 QD-OLED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속 한국광기술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AIGS 양자점 캡슐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공정 과정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였기에 디스플레이 분야뿐만 아니라 센서, 자동차, 조명, 의료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 사업인 'BT2020 90% 이상을 만족하는 고신뢰성 AIGS/AGS QD 대량생산 및 QD-OLED 적용기술 개발'을 통해 이뤄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5.93 (-48.50)
↓ 코스닥	684.38 (-13.21)
↓ 금리(국고채 3년)	2.603 (-0.067)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51.60 (+16.10)